

## 강임준 군산시장 당선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지도자 되겠다"

등록 2018.06.14 01:58:56



【군산=뉴스시스】고석중 기자 = 13일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 군산시장으로 당선이 확실시되는 강임준(왼쪽) 후보가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부인 박수자 여사와 함께 꽃다발을 들고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군산=뉴스시스】고석중 기자 =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전북 군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임준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4일 오전 1시50분 현재 70.64%의 개표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강 후보가 득표율 49.15% (4만5728표)로 2만3255표(25.00%)를 얻은 무소속 서동석 후보를 크게 앞섰다. 이어 바른미래당 진희완 후보(11.63%), 민주평화당 박종서 후보(11.30%), 자유한국당 이근열 1.95%, 무소속 김용경 후보 0.94%로 뒤를 이었다.

강 당선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욕심 있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가동이 잇따라 중단되면서 역대 최고급 위기에 봉착한 군산을 하루빨리 정상궤도로 끌어 올리기 위해 1400여명의 공직자와 함께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당선소감문을 통해 "새로운 혁신으로 희망의 군산을 반드시 만들겠다. 약속했던 지엠 군산공장 해결과 신재생에너지 일 자리 1만개 창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 화폐와 골목상권 살리기 5대 정책을 통한 자립경제 기반 구축과 새로운 도시재생 및 복합타운 조성을 통해 주거복지 해결과 도심 간 균형발전을 이뤄내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어 "시민이 만들고 시민이 즐기고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도시, 사회적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사람 중심 교통정책, 노인과 장애인에게 충분히 존중받는 노인·장애인 친화 도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복지정책, 청년 열정에 과감히 투자하는 군

산, 농어민이 살기 좋은 군산 등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힐링하고 머무는 매력적인 관광도시 군산을 건설하기 위해 근대역사문화 콘텐츠에 미래형 관광 프로그램, 고군산군도를 연결하는 관광전략 등 시민 주도의 관광 프로그램 발굴 지원 등의 정책도 내놴다.

강 당선자는 "행정기관이 중심인 제왕적 지방자치에서 벗어나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이 제안하며 시민이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더불어 "시민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군산시장 후보로서 함께 경쟁했던 이근열 후보, 진희완 후보, 박종서 후보, 서동석 후보에게 위로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k9900@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